

다니엘의 책 - 번호 182

예언적 동맹과 전투: 고대 셀레우코스에서 현대 지정학까지

Jeff Pippenger

2024-04-12

13절과 14절은 셀레우코스과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동맹을 맺던 한 역사를 지목하며, 그들은 로마의 최초의 대리 군대인 미국을 예표하고, 마케도니아(그리스)는 국제연합을 상징한다. 그 초기 역사에서 북방 왕(셀레우코스)과 필리포스(그리스)의 동맹은 파니움 전투로 이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며, 두 세기 뒤에 그 전투가 벌어진 그 마을은 이름이 파니움에서 가이사라 필리피로 바뀌었다. 그 도시의 이중 명칭은 셀레우코스과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의 동맹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은 파네아스 또는 파니움으로 알려진 고대 도시가 역사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유래했다. 이 도시는 원래 그리스 신 판에게 봉헌된 주요한 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파네아스라 불렸다. 고대에 중요한 종교적 성소였던 그 샘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도시는 대대적인 개축을 거쳐 확장되고 미화되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명명했다. 그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려 도시를 '가이사라'라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를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 했다.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가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경의를 반영한 '가이사라'와 헤롯 빌립을 기리는 '빌립보'가 결합된 이름이다.

예언적으로 파니움은 셀레우코스과 마케도니아의 필립 사이의 연합, 그리고 카이사르와 헤롯 필립 사이의 동맹과 연결되어 있다. 그 두 동맹은 셀레우코스과 필립으로 표상된 푸틴의 러시아 붕괴에 뒤이은 미국과 유엔 사이의 동맹을 가리킨다. 또한 이들은 둘 다 로마의 대표자였던 카이사르와 필립으로 표상된, 어머니인 교황권과 딸인 미국 사이의 동맹을 나타낸다. 함께 이들은 미국이 '그 간극을 넘어 로마 권세의 손을 붙잡고', 또 '심연을 넘어 심령주의와 손을 맞잡는' 것을 가리킨다. 16절의 일요일 법령 전에, 그 삼중 연합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파니움은 그리스 신 판을 숭배하던 중심지이다. 그리스 신 판에게 바쳐진 그 샘은 당시 '지옥의 문'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예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지옥의 문'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스(글로벌리즘)의 정치적·종교적 속성과 배도한 개신교 사이의 투쟁을 가리킨다. 이는 2절에서 그레시아의 영역을 뒤흔들어 놓은 부유한 대통령에 의해 처음 촉발된 전쟁이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외부 전쟁이자 미국 내부의 전쟁이기도 하다.

글로벌리즘의 종교는 용의 종교이며, 현대의 맥락에서는 각성주의의 종교다. 2020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언급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정치적·종교적 권세를 드러내어 땅의 짐승의 양쪽 뿔을 죽였다. 그 무저갱은 그 외에도 요단강을 공급하던 '판의 샘'으로 상징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판은 자연, 황야, 목가적 음악과 관련되었으며, 그에게 바쳐진 샘의 존재는 숭배자들에게 종교적 중요성을 지녔다. 신 판은 종종 염소의 다리, 뿔, 귀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판은 목동과 가축 떼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숲과 산에서 뛰노는 장난스럽고 짓궂은 신으로 자주 그려졌다. 염소 다리를 한 신으로서의 판의 형상은 그리스에 숭염소로 대표되는 다니엘서 8장과도 부합한다. 염소는 고대 그리스에서 흔한 가축이었고, 판이 배회한다고 여겨진 산악 지대에서도 자주 발견되었다. 이러한 묘사는 판의 도상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고, 그 신을 묘사한 그리스의 예술과 문학, 그리고 국가 화폐에도 지속되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때,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으로 이해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자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20.

이 구절은 예수의 사역과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모퉁잇돌로 여겨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표현은 가톨릭 전통에서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예수가 그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으로 지목했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가톨릭 신학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다. 신학적 해석과 무관하게, 마태복음 16장 13-20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본문으로 여겨지며, 예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확증한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The Desire of Ages의 한 대목을 소개했는데, 그곳에서 화이트 자매는 그리스도의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녀가 언급한 요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교훈을 제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의 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들은 갈릴리의 경계를 벗어나,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역에 있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이방인들의 예배와 더 가까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온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미신의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일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주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무리를 가르치는 일에서는 물러나고, 제자들에게 더욱 전념하고자 애쓰셨다. 시대의 소망, 411.

2020년 7월 18일에 그리스도께서는 2001년 9월 11일의 제자들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영향에서 분리하셨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첫 번째 실망은 제쳐지고 있던 조롱자들의 회중으로부터 그 운동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진리는 1844년 4월 19일 밀러주의 역사에서 성취되었고, 2020년 7월 18일에 다시 성취되었다. 그때 지체하는 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운동 모두에서 "진리"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실망은 세 가지 이정표 중 첫째이며,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을 예표하는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으로 끝을 맺는다. 시작인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는 실망을 상징하고, 끝인 스물두 번째 글자도 실망을 상징한다. 반역을 상징하는 열세 번째 글자는, 한밤중의 부름이 누가 그 위기에 대비했는지와 대비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낼 때,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실망을 드러낸다.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글자는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지만, 밀러주의 역사는 첫 번째 가데스를, 오늘 우리의 역사는 마지막 가데스를 대표한다.

두 개의 선은 서로 평행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나타낸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니움으로 데려가셨는데, 이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들을 파니움으로 데려오신 것과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마태복음 16장의 역사에서 "유대교"로 대표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배적 영향력"에서 마지막 시대 제자들을 떼어 내기 위한 한 차례의 실망을 허락하셨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이 이방 세계와 더 밀접히 접촉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을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끄는 데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 통신 시스템들로 대표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발현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 제자들의 사역 환경을 나타내셨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역사는 바니움 전투의 역사, 그리고 13절부터 15절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말세의 제자들이 주일법의 그늘 아래 서 있게 될 것을 예표한 것이다. 거기, 13절부터 15절, 곧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인 바니움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16절에서 곧 일어날 일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 하셨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홀로 물러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시대의 소망, 41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떠나시고, 다시 말해 지체하심으로, 비유와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역사 속에서 지체의

때를 표시하셨다.

"그들과 합류하셨을 때, 그분은 전하고자 하신 것을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다가올 시련을 견디도록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시대의 소망, 411.

2023년 7월에 주님께서서는 그 실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에스겔 37장의 기별을 열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의 기별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작된 인침의 때를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과 연결해 주는 실이었다. 그것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진리의 구조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보기를 기꺼이 원하는 자들은 모든 개혁 운동이 그들 특유의 거룩한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말세에 셋째 화의 메시지가 2001년 9월 11일에 왔고, 이어서 실망을 초래한 거짓된 셋째 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나, 삼일 반 동안 죽어 마르고 흩어진 뼈들이던 그들을 다시 살려낸 메시지는 네 바람의 메시지였고, 그것 또한 셋째 화였다.

말세의 제자들은, 보기를 택한다면, 14만 4천인의 인침과 관련된 세 이정표가 각 단계에서 동일한 주제임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상징되는 반역이 그 메시지를 '진리'로 확증하였다. 주께서 주신 두 번째 증거는, 선행한 개혁 운동들의 첫 번째 실망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반역에 근거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하지 않은 일이든, 옷사가 그 언약궤를 만진 일이든,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하신 예수의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심한 일이든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실망이 불순종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일한 개혁 노선은 밀러파의 개혁 운동이었지만, 그때에도 밀러파의 역사에는 '여덟째이되 일곱 중에 속한' 진리에 기초한 내부 이정표들이 존재했음이 또한 드러났다.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중요한 요소이며, 빌라델비아의 밀러주의 운동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환된 것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언제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될지를 식별해 주는 이정표였다. 따라서 첫 번째 밀러주의 실망이 그들의 운동이 불순종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지막 날들에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불순종하여 실망을 낳게 될 동일한 이정표에 대한 대비를 제공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밀러주의 이정표와 부합하여, 십사만 사천의 운동이 여덟째, 곧 일곱에 속한 것임을 보게 하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2023년 7월, 주님께서서는 일요일 법령의 위기에 대비하도록 말세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일으키셨고, 기도로 머무르신 뒤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자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그분의 침례가 그 메시지였는데, 바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시점이었다. 그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과 상응하며,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으신 다음, 제자들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다.

그들과 합류하신 직후, 그분은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여 굳세어지도록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그분이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벳새다에서 먹을 것을 얻었던 무리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411.

재림주의자 대다수는 2001년 9월 11일의 셋째 화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 운동에서 제시된 예언의 말씀의 몇몇 이적들을 믿었고, 일부는 2001년 9월 11일의 메시지에 진리의 요소가 있음을 이해했으나, 그들은 2001년 9월 11일에 관한 주장들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다.

2001년 9월 11일의 주장은 1840년 8월 11일의 주장으로 예표되어 있었고, 1840년 8월 11일의 성취에 대해 논평하는 가운데 화잇 자매가 그 주장을 밝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로 그 지정된 때에 터키는 자국의 대사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열강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허다한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 원칙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더해졌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이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설교하고 출판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1840년 8월 11일에 입증된 것은 밀러의 예언적 견해가 정확하다는 것이었고, 2001년 9월 11일의 주장은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견해가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23년 7월의 회개하지 않는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Future for America에 맡기신 방법론이 실제로는 늦은 비의 방법론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받아들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 곧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마음이 찢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은, 요한이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사명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열렬히 기대하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러실 뜻이 없음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났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제는 칭송하고 오늘은 정죄하는 이들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구주를 참되게 따르는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주께서 왕의 영광을 받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낮아지심 가운데서 그분을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반대와 왜곡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갈 길을 분명히 보지 못했다. 어려서 받은 훈련의 영향, 랍비들의 가르침, 전통의 권세가 여전히 그들의 진리에 대한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귀한 빛줄기가 그들에게 비쳤지만, 그들은 종종 그림자 속을 더듬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이날, 그들의 믿음이 큰 시험과 맞닥뜨리기 전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은 '보이는 것들'에서 돌이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고린도후서 4:18. 인간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알아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살과 피가 네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힌 베드로의 고백은 그 시대의 시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가 이르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베드로의 진술이 대표하는 무리에 포함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2001년 9월 11일에 확립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열두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말에서, 그가 대표한 열둘은 14만 4천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목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바요나에서 베드로로 바꾸셨다.

"시몬"은 "듣는 자"를 뜻하고, "bar"는 "~의 아들"을 뜻하며, "요나"는 "비둘기"를 뜻한다. 시몬은 비둘기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을 대표했는데, 이 비둘기는 예수께서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신 세례와 관련된 진리들을 상징했다. 이는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개혁의 선들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요한은 1840년 8월 11일에 작은 책을 먹은 밀러주의자들을 대표한다. 예레미야는 그 사건과 상응하며, 작은 책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예레미야 15:16.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래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언약 관계를 나타내며, 신성한 표징이 내려오는 그 이정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지를 먹고, 언약을 맺고, 그때 그들의 이름이 바뀐다. 그리스도의 때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시몬 바요나는 '비둘기'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을 대표했다.

그가 그 이정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증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다. 그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 받아들였던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말세의 십사만 사천을 예표하기도 했다.

영어 알파벳에서 "P"는 열여섯 번째 글자이고, "E"는 다섯 번째 글자이며, "T"는 스무 번째 글자이고, "E"가 반복되며, 이름은 열여덟 번째 글자인 "R"로 끝난다. 열여섯 "곱하기" 다섯, "곱하기" 스물, "곱하기" 다섯, "곱하기" 열여덟은 십사만 사천과 같다. 경이로운 언어학자는 히브리어로 Peter에게 말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킹 제임스 번역본의 번역자들은 신약을 영어로 번역했다.

서로 다른 언어의 세 단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놀라운 언어학자이자 놀라운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파니움 전투와 그분의 가이사라 빌립보 방문에 부합하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에 대한 예시를 마태복음 16장에 제시하셨다. 그분은 언어와 수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팔모니(놀라운 수를 헤아리시는 분)요 말씀(놀라운 언어학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거의 이천 년 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신비한 뜻을 지닌 음성이 들렸다. "보라, 내가 오나이다." "제사와 예물은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보라, 내가 왔나이다(두루마리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며,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5-7. 이 말씀 속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목적의 성취가 선포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을 방문하여 성육신하시려고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만일 그분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니셨던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더라면, 우리는 그 임재의 빛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의 영광의 나타나심은 가려졌다. 그분의 신성은 인성으로 가려졌고, 보이지 않는 영광은 보이는 인간의 형상 속에 감추어졌다.

이 위대한 목적은 모형과 상징 속에서 예표되어 왔다. 모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계시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상징은 겉보기에는 아무 매력도 없어 보이는 비천한 떨기나무였다. 그것은 무한하신 이를 품고 있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보고도 살 수 있도록, 지극히 겸손한 형상 속에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다. 이와 같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통하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그러지고, 그분의 위엄은 가려져서,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선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Philippians 3:21, R. V.),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눈에는 사람들이 그를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으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의 영광은 가려졌고, 그의 크심과 위엄은 숨겨졌다. 이는 그가 슬픔 가운데 있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성소를 짓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출애굽기 25:8) 하셨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 있는 그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치도록 방랑하는 동안 내내, 그분의 임재의 표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인간

진영 한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세우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생애에 익숙해지도록, 사람들의 장막 곁에 자신의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R. V., margin.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은 우리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구주께서 이 땅에서 사신 생애에 나타난 은혜의 모든 가르침과 기쁨의 모든 약속과 사랑의 모든 행위와 모든 신적 감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본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마치 이기심의 법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첫 조상들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비애를 그는 창조주께로 돌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근원으로 보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 기만을 드러내시려 하셨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순종의 본을 보이시려 했다. 이 일을 위해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겪으셨다. '그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17.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것을 감당해야 했다면, 이 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15.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견디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권능도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맞서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으로 이를 이기셨다. 그는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그분이 선을 행하시며 사탄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율법의 성품과 그분 사역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증언한다.

그분의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와 접촉하셨고,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신다. 인자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호렙 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Exodus 3:14.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하신 구주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1 Timothy 3:16.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살아 있는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John 10:11; 6:51; 14:6; Matthew 28:18.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증이며, 하늘의 법에 순종할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The Desire of Ages, 23, 24.